근기요산회 장암동 수락산행

10월 산행은 강화 정족산성으로

▲ 권영익 회장이 식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9월 정기 산행에는 35인 회원이 참여했다. 9월 셋째 토요일인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철 7호선 종점 의정부시 장암동의 장암역에 집결한 회원들은 큰 길을 건너 수락산 등산로 입구로 이동하였다. 이윽고 노강서원鷺江書院과 석림사石林寺를 지나 제대로 된 등산로로 접어들어 계곡을 오르다가 바위가 너른 곳에 자리잡고 늘어앉아 회의와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권영익權寧翼회장은 다음달 10월의 산행을 예정했던대로 강화도로 갈 것에 대해 의논하였다. 목표는 전등사傳燈寺와 정족산성鼎足山城으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김포의 대명大明포구에서 생선회로 연음을 즐긴 다음 손돌목유적지를 둘러보고 돌아올 계획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만큼 회원들은 미리 총무에게 참석여부를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와 식사를 마치고는 연로한 회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하산하고 10여명이 도정봉 능선을 향하여 본격 등반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비가 내리기를 계속하여 이삼인 애호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산하였다. 이날의 등반은 예월과 같이 날씨가 좋지 않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수락산水落山은 서울의 동북쪽 끝 노원구와 경기도의 의정부시 및 남양주시에 걸쳐 있다. 남쪽으로는 불암산佛岩山이 덕릉고개 또는 당고개를 사이로 연결되어 있어 종주縱走가 가능하다. 산 전체가 화강암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기암괴석과 샘이며 폭포가 많은 반면 나무는 계곡에만 울창하다. 능선이 많은 산의 분위기가 다소 삭막하기도 하지만 암석의 경치가 뛰어나고 곳곳에서 맑은 물이 흐른다.

악산惡山이 곧 절경을 연출하는 법인데 수락에도 8경이 있다. 금류폭金流瀑、은銀류폭、옥玉류폭에 신라 시대부터의 흥국사興國寺, 조선시대의 내원암 등이 있고 동쪽과 서쪽 산록의 계곡에는 수락산유원지와 벽운동碧雲洞유원지가 있다. 산세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가 석벽과 암반으로 되어 있어 도처에 기암괴석이 즐비하다.

장암동에는 조선 숙종 때 이조판서와 판부사判府事를 지내고 실학의 개창자가 된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고택과 육각정 궤산정이 있는데 의정부시는 이곳에서 매년 서계를 기리는 문화제를 연다. 수락산의 이름과 관련해서 민속으로 전하는 설화가 있다.

옛날 한 사냥꾼이 '수락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사냥을 들어갔다. 그날 갑자기 큰비가 닥쳐 사냥꾼 부자는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다 문득 잠이 들었다. 그럴 때 호랑이가 나타나 잠든 수락이를 물어가 버렸다. 이윽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아들 수락이를 찾았지만 종적이 없었다. 아버지 사냥꾼은 아들 수락을 찾아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바위에서 추락해 죽고 말았다. 이로부터 비만 오면 이 산에서 '수락아,수락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므로 사람들이 산이름을 수락이라 하였다 한다.

<사진 權奇允 · 글 權炳逸>

14면에서 계속

을 한 장면은 최소한 1941년 4월이 아니라 1940년 4월은 되어야 앞뒤가 맞는다.

1997년에 3、1여성동지회라는 단체에서는 그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그 기관지 '3、1여성' 제6호 특집으로 '여성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증언'을 실었다. 거기에 이미 76세가 된 김시현과 권애라의 아들 김봉년은 그 한 해 전 자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언 '민족항쟁의 비밀감옥과 장춘형무소長春刑務所'를 게재하고 있다. 이때 김봉년의 직함은 광복회원光復會員과 3、1여성동지회 고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0년 6월 나는 일제식민 시대에 서울 창신동昌信洞 친지댁에 몸을 의지하며 머물고 있을 때, 낯선 손님이 나를 찾는다고 하기에 나가 만나보았다. 그는 중국 북경에서 왔다면서 어머니 소식을 전한 후, 어머니가 아들 봉년을 만나보라 하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어머니의 편지를 전했다. 편지를 보니 그 편지를 전하는 분의 성명이 박봉필朴鳳弼씨라 소개하는데 필체가 분명 어머니의 친필이었다. 편지를 받는 즉시 박봉필 선생을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발해 어머니 곁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여행 준비를 끝내고 경성역발京城驛發 북경행 열차편으로 박봉필 선생의 안내를 받으며 북경역에 무사히 도착했다. 열차여행증명서는 박봉필 선생이 가지고 왔으므로 신의주新義州와 산해관山海關의 국경선역을 무난히 통과하여 목적지 북경역에 도착하고 역출구를 나오니 어머니와 아버지 김시현 선생이 중국 복장을 하고 나를 반갑게 반겨주셨다. 따라서 어머니가 거처하는 집에 도착해보니 중국인으로 상류사회의 가정으로 보였다. 나는 우선 중국사람의 풍속을 배우고 중국옷으로 갈아입고 중국언어와 예의범절을 배웠다.

여기에 나오는 박봉필은 190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김시현을 추종하여 1934년에 만주에서 김시현이 조직한 의열단에 들어와 활동한 사람이다. 그는 줄곧 김시현의 측근으로 활약했으며 1941년에는 김시현과 협력으로 항일비밀결사抗日秘密結社를 조직하여 항쟁하다 체포되었다. 1942년에 만주의 신경고등법원新京高等法院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장춘형무소長春刑務所에서 복역중 1945년 해방 직전에 일본 관동군關東軍에 총살되어 38세로 순국했다. 또 김봉년이 이때 북경에 가서야 중국옷을 입고 중국 풍습과 언어를 배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한 해 전인 1939년 3월에 만주 길림의 영신농림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므로 길림의 영신농림학교에서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어로 공부한 것이 될 것이다.

다시 김봉년의 자술증언 내용을 정리해본다.

1940년 7월 어느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더니, 현재 일본군이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는 북경을 떠나야 하며 중국항일정부 지역으로 망명을 결심하라는 말씀이었다. 그 지역으로 은밀히 입국해 조선 독립군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조선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 침략자들을 반도에서 몰아내도록 신명을 바쳐 투쟁에 앞장서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셨다.

1940년 8월 하순경

중국옷으로 변장하고 박봉필 선생의 안내를 받으며 일본군과 중국군이 대치중인 경계의 봉쇄선을 통과하여 황하黃河 이북의 화북성華北省과 산서성山西省 지역에 들어가 그곳에 주둔중인 조선독립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였다. 광복군 제3지대장은 황포군관학교黃浦軍官學校 출신 중국군 육군소장 박효삼朴孝三씨였다. 김봉년은 광복군 입대와 동시에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설립된 중국의 항일정치군사대학교抗日政治軍事大學校의 정치군사반政治軍事班 학생으로 입교하였다.

당시 중국 군부는 국공합작과 국민통합에 따른 명칭을 중국국민혁명군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개석蔣介石 총통을, 부위원장에 주은래周恩來를 선임하고 있었다. 김봉년은 광복군 대원이면서 중국국민혁명군 18집단군 제129사단 정치부대에 소속되어 중국군과 동일한 무기 일체를 지급받았다. 당시 김봉년은 22세였으며 4백원圓의 봉급을 받았는데 이는 중국군 연대장급 봉급이었다.

1942년 9월 중순경

부친 김시현은 중경重慶에 있는 임시정부의 조직기구편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의 전신 국제연명본부에 임정의 합법적인 망명정부인가 신청을 제출중임을 말하면서 그 승인 절차에 필요한 3대요건의 하나인 독립군의 부대편성과 병력 충원에 골몰하였다. 군병력의 미비 때문에 합법망명정부로의 승인이 국제연맹본부에 계류중이라는 것이었다. 독립군 병력이 최소한 혼성여단混成旅團으로서 전투력을 갖춘 6천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도록 부탁하는 중경의 임정 주석主席 김구金九의 연락이 왔다면서 그의 부모 김시현과 권애라는 그 충원계획을 짜고 있었다.

1942년 9월 하순경

김봉년은 그 부모와 함께 동북만주 지역 길림성吉林省 연변延邊지역으로 재차 잠입하였다. 독립군 병력의 충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중국군과 일군이 대치중인 봉쇄선을 통과하고 요동을 지나 길림성 영길현永吉縣의 시가둔施家屯에 소재하는 영신농장永新農場에 도착해 안주할 수가 있었다.

김봉년은 우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영신농림학교 학생으로 위장입학하고 만주지역 연락총책 박봉필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박봉필은 당시 길림성과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거주하던 조선족동포 청장년층에서 사람을 구해 지하조직 결사結社에 포섭、가담시키고, 비밀운동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김봉년은 어머니 권애라와 함께 그 지휘하에 활약하였다. 물론 김시현은 화북지역으로 돌아가 활동하고 있었다.

위에서 김봉년은 1942년 9월 하순경에 길림성 영길현의 영신농장에 도착하여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영신농림학교 학생으로 위장입학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다른 기록에서 그보다 3년 전인 1939년 3월에 동일한 영신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또한 서로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양자가 다 김봉년의 구술에서 나온 것이겠는데 이러한 착오가 나는 것은 이를 기록정리하는 데서 말미암은 바일 수도 있을 것이다. 김봉년의 증언 기록은 계속 이어진다.